관람객 적어 박람회 뱃길도 막혔다

여수~제주, 여수~광양 운항 중단… 여수~하동도 검토

크루즈호텔 입항 또 연기… 1만 예약자 발동동

여수세계박람회(8월 12일까지)를 찾는 관람객이 적어 여객선들이 운항을 중단하는 등 여수로 오는 뱃길도 막히고 있다. 또 박람회 숙박 명소로 기대를 모았던 '크루즈호텔' 개장이 오는 6월 10일로 또 연기됐다.

◇운항중단 잇따라=제주와 경남지역 관람객을 수송하기 위해 박람회 개막에 맞춰 운항을 시작했던 여객선들이 관람객이 없어 잇따라 닻을 내렸다.

여수~제주간을 운항하고 있는 쾌속카페리 '오렌지호'(2071t급)가 지난 18일 첫 취항 후 4일만인 지난 21일부터 운항을 중단했다. 배를 타는 관람객이 없어 하루 왕복 운항 시 발생하는 수천만원대의 적자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렌지호의 여객정원은 564명지만 하루 평균 편도운항 탑승실적은 150명 정도에 그쳤다.

오렌지호 선사측은 승객이 적은 원인 중 하나가 차량을 실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고 오는 25일~28일까지 임시 운항을 한 뒤 다음달 큰 배로 교체해 이 구간을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여수~광양을 오가는 '데모크라시1호'(294t급)도 지난 12일, 22일 2회 운항한 뒤 영업을 중단했다. 300명이 탈 수 있는 이 배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왕복 150명은 태워야 하지만 관람객은 120명에도 못 미쳐 운항을 중단했다.

여수와 경남지역을 잇는 여객선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박람회 개막후 지난 21일 현재 여수~남해간 4척의 여객선을 이용한 관람객은 1만393명이었고, 여수~하동은 1130명에 그쳐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루즈 선박 입항 지연=크루즈를 박람회장에 정박시켜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크루즈호텔 개장도 다시 연기됐다.

여수시는 23일 "크루즈호텔로 사용될 3만t급 파나마 선적 크루즈인 '오션 스타 퍼시픽호'의 입항이 늦어져 오는 6월 10일에야 개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루즈호텔 개장일은 박람회 개막일(12일)을 넘겨 28일로 연기됐고, 여전히 배가 오지 않아 다시 다음달로 미뤄졌다.

시 관계자는 "이 배가 기름을 넣기 위해 미국의 LA항에 갔다가 선박 안전인증서가 없어 멕시코의 만사니요항으로 회항해 여수 입항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인증서는 매년 선박의 안전검사를 한 결과로 선박의 운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이 배의 출항이 늦어짐에 따라 오는 28일 크루즈호텔 개장에 맞춰 방을 예약했던 관람객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숙박이 예약된 객실은 총 5120실(실당 평균 2.5명)이며, 이 중 120실이 이번에 연장된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예약분이다.

시는 크루즈의 입항이 늦어져 피해를 본 이들 관람객들은 모두 인근 디오션호텔과 HL호텔에서 묵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크루즈호텔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배가 정박하게 될 박람회장 부두의 수심이 6.7m에 불과해 기존에 입항하기로 했던 '크루즈 디에머랄드호'가 정박할 수 없게 돼 다른 배로 교체해야 했기 때문이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김창화기자 mtlim@

공기조 풀가동 실내 환기

박람회장 14곳 재조사 결과 오늘 발표

여수세계박람회(8월 12일까지) 전시관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과 관련, 전남도와 박람회 조직위가 24일 2차 실내 공기질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실내 공기질 조사는 1차 조사 대상이었던 국제관 등지 18곳 중 폼알데하이드 유지 기준치를 초과한 14곳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공기질 조사에서도 기업관과 독립국가관 등 밀실 형태를 띠고 있는 전시 공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직위는 또 문제가 된 공간의 출입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공조기를 가동하는 등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4월 23일~5월 4일 국제관·지자체관·해양로봇관 등지 18곳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14곳에서 폼알데하이드 유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국 8도 中企 신상품 애용해 주세요

코레일 광주본부 전시관 운영 판매

전국 우수중소기업의 제품들이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홍보·판매된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23일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 '전국 BEST 8 신상품 전시관'을 열고 전남을 비롯해 8도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판매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전시관을 마련했으며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조선대 산학협력 기업인 (주)테라에코의 기능성 화장품, 리안의 천연비누 등이 전시·판매된다.

특히 전국 8도의 특색 있는 제품들로 전시장을 구성했으며, 각 지역의 역장이 직접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품들을 선택했다. 전시관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된다.

이대수 코레일 광주본부장은 "지역과 함께 어우리는 코레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

부르키나파소·그레나다·에리트레아…

小國 문화·역사 보는 재미 "참 쏠쏠하네"

전통 수공예품·옷 판매 관람객에 색다른 추억

부르키나파소, 코모로, 모리타니, 그레나다, 안티구아바부다, 세인트키츠네비스, 가이아나, 세이셜, 에리트레아, 바누아투…. '외계어'가 아니다.

여수세계박람회(8월 12일까지·이하 박람회) 공동국가관에 정식 초대된 국토와 주권을 가진 나라의 이름들이다. 이번 박람회는 미국·중국·일본 등 인기 국가관뿐 아니라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가 주는 다양한 감동이 있다.

아프리카 서부의 부르키나파소는 이번 박람회에 14~17세기 코우랑고족이 세운 로로페니유적을 담은 영상을 전시하고 있다. 이 유적은 6m 높이의 성벽과 10개의 요새로 이뤄졌고, 코우랑고족의 금채광·제련기술을 보여준다. 또 아프리카의 오스카라고 할 수 있는 페스파코(Fespaco) 영화제와 수공예품, 전통 옷 등을 소개하고 있다.

같은 대륙에 있는 코모로는 세계 최대 바닐라 생산국답게 다양한 자국의 농작물을 자랑하고 있다. 겔랑 아쿠아 알레고리아, 샤넬 향수에 쓰이는 일랑일랑 오일, 바다거북, 돌고래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대서양 수산자원의 보고 모리타니는 서아프리카 최대의 겨울철 철새도래지 방다르갱 국립공원을 소개하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의 작은 나라들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전시관에는 식민지 쟁탈전을 펼치던 유럽 열강들에 핍박받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콜럼버스에 의해 발견돼 유럽에 알려진 그레나다는 다양한 향신료를 전시하고, 지난 198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안티구아바부다는 잉글리시 항구와 넬슨군항의 다양한 이미지와 전통 나무 어망 등을 전시한다.

대서양과 카리브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열강들의 각축장이었던 세인트키츠네비스는 대서양 해수를 이용한 다양한 양식 시설과 브림스톤힐요새국립공원을 소개한다. 또 가이아나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아마존의 열대우림을 소개한다.

축구 스타 베컴 부부가 결혼 10주년 여행을 다녀와 유명해진 인도양 세이셜도 산호초가 부서져 만들어진 해변과 짙은 야자수 등 자국의 관광지를 소개한다. 세이셜관에서는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문화가 혼합돼 만들어진 크레올 문화를 만끽할 수도 있다.

이 밖에 아프리카동북부 에리트레아는 원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와 공예를 선사하고, 남태평양의 작은 섬 나라 바누아투도 바다와 인간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한편 이들 국가들을 소개하는 공동국가관에는 각국의 전통 수공예품과 옷 등을 판매하는 매장이 따로 마련돼 있어 색다른 추억을 남길 수도 있다.

또 공동국가관은 '엑스포 여권'에 찍는 '전시관 기념스탬프'를 한 번에 여러 곳을 받을 수 있어 아이들에게도 인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여수세계박람회에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엿보는 재미가 있다. 위로부터 그레나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안티구아바부다 국가관 모습.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31일 박람회장서 '바다의 날' 기념식

해양레포츠 체험 등 다양

여수세계박람회 한국관에서 오는 31일 김황식 국무총리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우리의 바다, 세계와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은 유공자 정부포상 등으로 진행되며 여수 웅천 친수공원에서 카누, 카약, 요트 등 해양레포츠 체험행사도 곁들여진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세계해운시장 안정화와 한국해운 발전에 기여한 이석희 현대상선 사장이 받는다.

또 석탑산업훈장은 남극 로스해에서 조난당한 러시아 어선 '스파르타호'를 인명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구조한 STX마린서비스 '아라온호' 선장 김현율 씨에게 돌아간다.

한편 바다의 날을 맞아 이 지역에서 해양레포츠 체험 및 경주대회(웅천 친수공원·26일)와 어린이 바다 그림 그리기 대회(목포·30일) 등 관련 행사들이 풍성하게 펼쳐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